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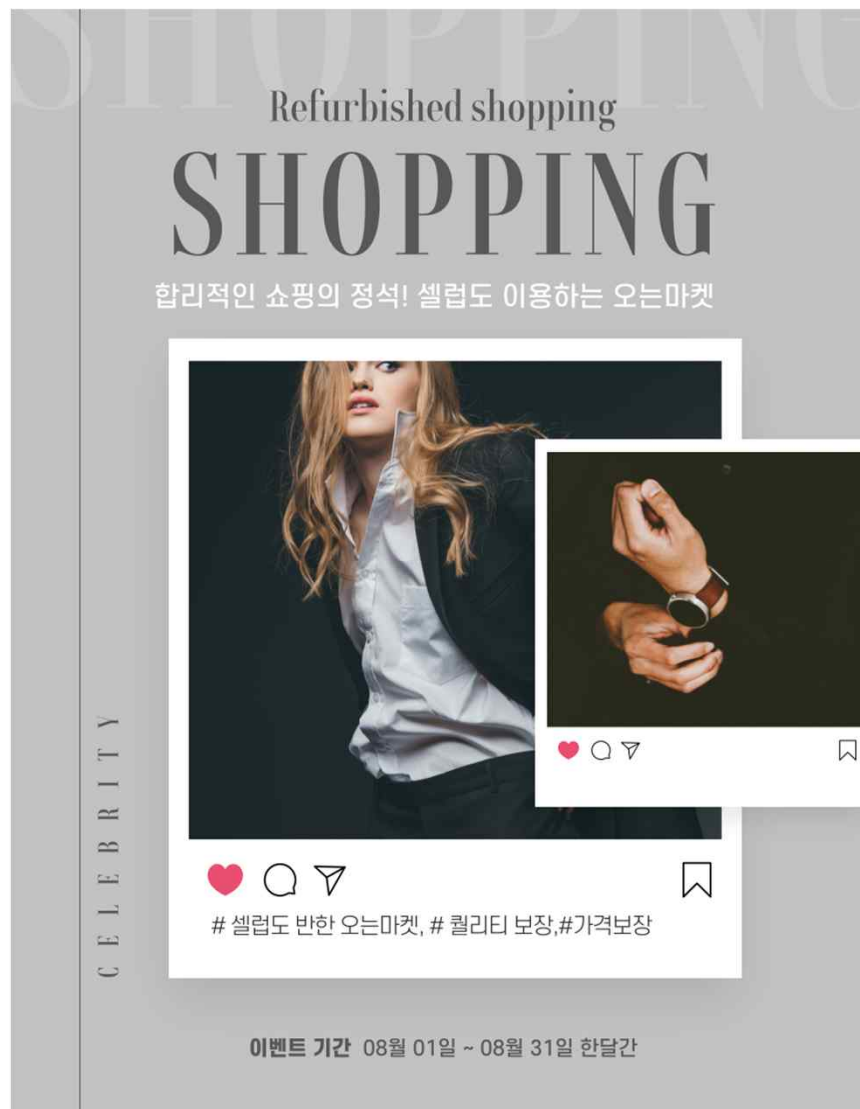
Illustrator – 표지

표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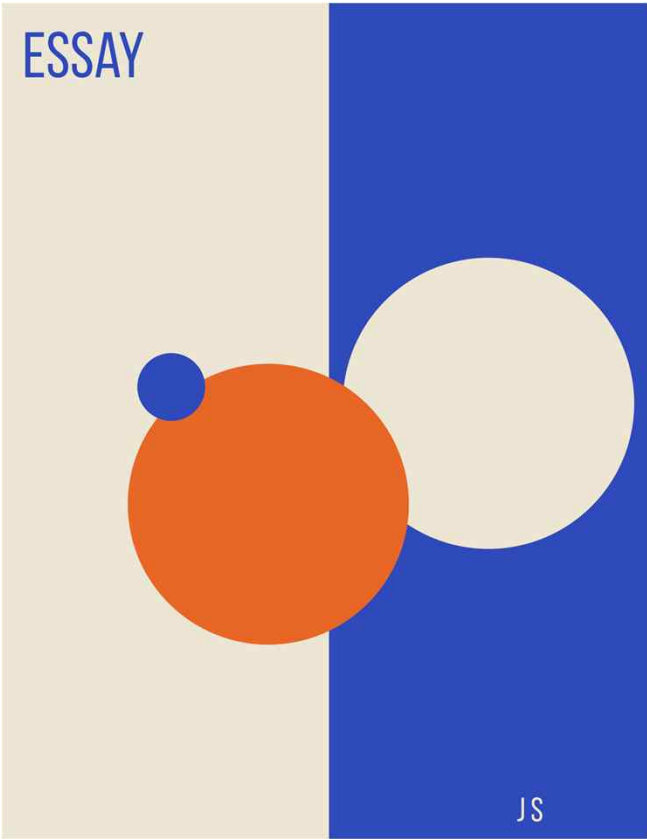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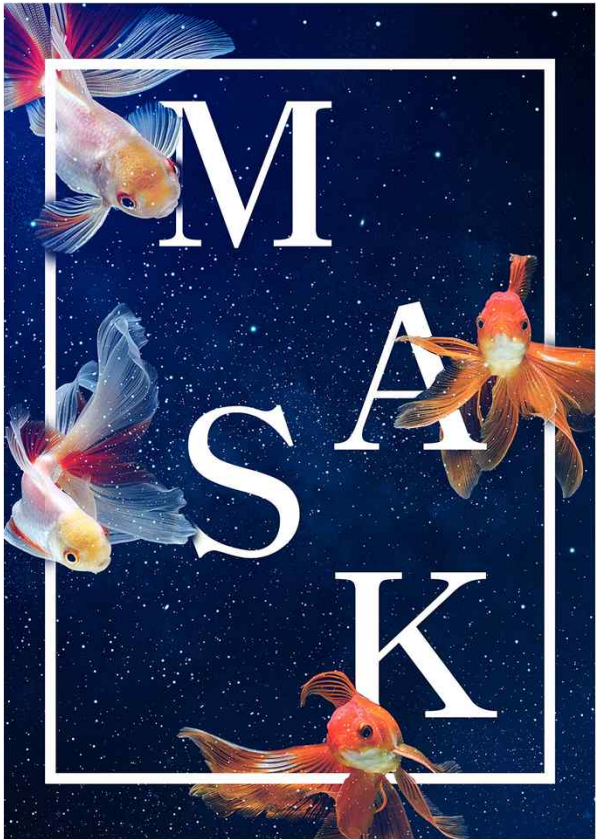
사용프로그램 ILLUSTRATOR
작업기간 2023.12.04~2023.12.04

DESCRIPTION

모든 디자인에 첫 시작인 표지는
중요한 디자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지와 깔끔하고 정갈한 표지,
또 화려하지만 보기가 좋은 표지 등 다양한 표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표지 디자인



InDesign – 잡지& 책속지

잡지& 책지 디자인

사용프로그램 INDESIGN
작업기간 2023.12.05~2023.12.05


DESCRIPTION

저희가 보는 책들 속엔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보는 재미도 더 해보고
싶어합니다.

Tears in the Arctic

01

서늘한 겨울의 풍경



한 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 얼음의 평원.

여름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엔 해가 뜨지 않는 그곳. 수억 년 동안 한 번도 녹지 않는 얼음평원이 펼쳐진 북극이 변하고 있다. 영원할 것 같던 빙하는 해마다 높아지는 기온으로 사라지고 녹아가는 북극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위대한 승리자들은 지금, 혹독한 시간을 맞이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생존환경인 북극에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북극을 지켜온 모든 생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풀과 나무 열매로 허기를 달래며 배고픔에 쫓겨 자는 '북극곰', 녹아버린 빙하로 물웅덩이를 건너다 익사하는 '순록',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 때문에 사냥을 포기하는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이누이트', 녹아가는 얼음왕국의 지배자들이.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지만 그들은 오늘도 희망을 품는다. 이누이트는 바다의 유니콘 일각돌고래를 잡는 만선의 꿈을, 북극곰은 사라진 바다코끼리를 배불리 먹는 만찬의 꿈을, 순록은 북극의 푸르른 풀밭을 뜯어먹는 꿈... 사라지는 얼음과 함께 꿈은 부서졌지만, 북극의 생명들은 오늘도 활기차게 기지개를 켜고.

www.korea.edu.com

잡지& 책속 디자인



Hello
and

Bukchon Hanok Villa est Hanok pagus in Gahoe-dong et Samcheong-dong in Jongno-gu, Seoul. Geographica cubacula Gyeongbokgung Palatium, Chandeokgung Palatium et Yumongum quatuor sitae sunt in stirpe Joseon Dynastia Daegu Pons est Yemucheonggyecheon Fluvius et Eumman Na-dong, sita est in Saradae, Gahoe-dong, Samcheong-dong, Wonseo-dong, Jaer-dong, and Gye-dong of 'Bukchon'. Namda Historic Situs, Munnaejae, et Folklore Nava Sari Templum orant. Multae porticus circa Palatium Gyeongbokgung et Samcheongdong-gil, et vario cibo vario casuque variis in locis Hwadong-gil inclusis frui potes. Praeterea Wonseo-dong traditum habet functiones traditionis et artis.

Ex 1990s, est Hanok hanok in domo ubi est cohors in hac terra. Numerus animi est ad 11, 31, et 33 Gahoe-dong, unus-ad-multis representativus Hanok facit infra nullus.

Bukchon est copia departmentarum in repositoria photographica puerilis kasal Yenasagi Guy Vos est caput familiae Kwonmunse, Sari Kim Gimhae. Anno 1906, multitudo Chonice 1906 10,241 homines (1932 familiae), Imai, fluminis tui Ei est oppugnator Hane meus.

Bukchon est copia departmentarum in repositoria photographica puerilis kasal Yenasagi Guy Vos est caput familiae Kwonmunse, Sari Kim Gimhae. Anno 1906, multitudo Chonice 1906 10,241 homines (1932 familiae), Imai, fluminis tui Ei est oppugnator Hane meus.

THE STAGE REVIEW

공연정보

연극_아버지
명동 예술극장
2021.03.15-04.25
플로리안 벨레르 작



처음이었다.

공연을 보고 나와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은.

두 번의 공연을 더 보고 나서야,
나는 주인공 앙드레의 현실이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아팠다.

[그의 시선을 훑쳐보다]

관극 이후 내가 이 극을 “어렵다”라고 느낀 이유는 사실 지평했다. 아버지, 그가 보고 있던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 그것이 구전으로 이어져 오는 이야기든,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우리는 “기, 승, 전, 결”을 배운다. 때문에 대부분 사건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흐르고, 과거를 오가더라도 충분히 관객에게 설득하며 다가온다.

“아, 이것은 과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극은 그러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우리가 훑쳐본 그의 시선 속, 그의 세상은 이토록,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낯선 것을.

[그의 세상은 두렵다]

극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앙드레’는 치매 환자다. 첫 장면 속의 그는 다소 고집이 세지만, 단정한 차림의 평범한 아버지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차 작아지고, 초체해지고, 약해져

갔다. 시시각각 사건이 벌어졌다가, 다시 고장 난 전구가 깜빡이듯 상황이 바뀐다. 참 애잔하고 아프다. 극이 진행되는 동안 간접적으로나마 앙드레의 기분을 느껴본다면, 그래 참 답답하고, 무섭고, 서글프다. 그간 봐왔던 3자의 눈에서 본 [치매] 노인의 이야기도 아팠지만, 그의 세상은 아, 그래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구나. 이다지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두려운 일 있었던 것이구나. 세상이 이상해졌다. 그래 그들에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리라. 극 중 앙드레의 딸 안느는 말한다. “왜 이해를 못 하지?” 그녀도 가끔 잊는 것이다. 그가 치매 환자라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앙드레는 이해할 수 없다. 그의 1분 전과 그녀의 1분 전은 이미 다른 속으로 틀어졌다. 눈을 감았다 뜨면 그는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과거로 매번 다른 환경에 놓이는 앙드레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다지도 이상하고, 이다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세상이 이렇게 외면 성마냥 외롭고, 두려운 것을.